

고려대학교
성적 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http://www.queerkorea.org/>

안녕하세요! **

고려대학교 성적 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입니다.

성적 소수자(“이반”)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려대학교 성적 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은 1995년 가을에 결성되어 그 후 8년 동안 고대의 일반, 이반 학우들 모두를 상대로 꾸준한 활동과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저희는 2003년 10월 6일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로부터 중앙동아리 공식 인준을 받는 데에 성공했고,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공식 인준을 받은 대학 성적 소수자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예전 1, 2호와는 달리 “동성애”에 대한 정보지 컨셉으로 나가 지 않고 “사람과사람”이라는 모임에 대한 소개와 회원들의 생각과 일상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동성애와 이반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인터넷 또는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보다 사람과사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글들을 내놓자고 가이드 초기 기획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많이 미흡한 글들이지만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시는 것이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임을 동아리 인준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신 2003년 동아리연합회, 동연 대표자회의, 사람과사람 회원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봐주신 고려대학교 학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례

愛

사랑에 대해서

1. 안녕하세요!**
2. hiemis 씬
3. 인터뷰
4. 白狗 씬
5. 그 녀석
6. “내 친구는 게이다” Part III
7. 상호 씬
8. jimmy do 씬

集

모임에 대해서

1. 모임 활동에 대해서
2. CJH 씬
3. 사람, 사람과 사람에 들어오다!
4. 사람과사람 가입 절차

사 랑

愛

hiemis 썸

.. 바보같은 상상

사람이 많은 커피숍에서 혼자 나를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 키스 하고 싶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손을 잡고 걷고 싶다.. 길에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묻지 않고 더더욱 무슨 사이냐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묻더라도 내 애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짓게 되는 묘한 미소와 함께.. 응 그런가 보다 했으면 싶다.. 밤 늦은 벤치에 누워 그 사람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나를 내려다 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추우면 꼭 끌어안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하철에서..카페에서.. 한번쯤 특별한 날 가보았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그 말이 속삭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친구라 이름 붙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고...
... 이것은 '이곳'의 게이로 살아가는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phaedrus 씬

인터뷰

저희 사이트(<http://www.queerkorea.org/>)나 대표자 메일에 종종 동성애 리포트나 발표를 해야 한다고 정보를 찾아달라거나(-_-;;;) 인터뷰를 해달라는 정중한 구걸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심지어 타대학에서도;). 들어오는 요청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는 “사람과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인터뷰는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지기를 맡으면서 이런 인터뷰를 돌려보낼 때마다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리포트에 필요한 인터뷰 때문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성애에 대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어설피게나마 자신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A+ 받으세요!!!

Q. 언제부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질문자는 언제부터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셨죠? 저희도 애매해요. 대부분은 살다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들처럼 보통 사춘기 쯤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만요.

Q.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도 꽤 팬찮을 듯 한데. 좀 더 사귀어 보려고 요.

아, 이성하고 결혼할 생각 있나요? 자꾸 질문을 돌려서 죄송하지만 질문자 는 동성하고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전 한 때 고려해본 적이 있긴 했지만 세상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이 시대에 굳이 거짓말 속에 인생을 바칠 필요 가 없을 것 같아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상이 그만큼의 가치 있다가 나 변하지 못할 사회적인 현실이 아닌 듯 해요.

Q. 성 관계를 하실 때 여성 역할을 하세요 남성 역할을 하세요?

(정말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레즈비언은 레즈비언처럼 섹스하고 게이는 게이처럼 섹스해요. 여자 남자 역 할 따로 없어요.

Q. 여자/남자가 되고 싶으세요?

모든 레즈나 게이가 이성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전 남자가 좋고 남자인 자신도 좋거든요. 여자도 멋있지만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레즈분들도 자신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지만 여장하는 남자들(드랙퀸)들은 꼭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드랙퀸들은 미학적인 컨셉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행위 예술이죠. ‘행위 예술’이라고 하면 왠지 드랙하고 어울리지 않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느낌이 들지만요.

Q. 여장하고 다니세요?

아뇨.

Q. 이성애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상하게도, 어리고 힘들었을 때도 이성애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을 피부로 느끼면서, 올바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성한 동성애’니 제 성향을 신격화하기도 했죠. 나의 사랑은 신성한 만큼, 신이 내린 것인 만큼 건들이면 죽이겠다는. (-_-;;;)

하지만 대학 와서 좀 더 느긋해졌다고 할까요. 이성애자들을 더 이상 성적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악마들로 보지는 않거든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어찌나 저희를 지지해주시던지... 이 세상의 진정한 죄악은 동성애나 이성애가 아닌 '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성적 소수자가 되든 이성애자가 되든 상관 없어요. 무식하지만 았았으면 좋겠어요.

Q.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성애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성애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없다고 봐요. 일단 청소년들이 동성애적으로나 이성애적으로나 어른들로부터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죠. 하지만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어떤 정보가, 예를 들어 웹 사이트가, 동성애와 관련되어있다고 하여 차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Q. 동성애는 선택인가요.

일단 동성애는 선택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성적 소수자는 성적 소수자니까요.

하지만 이쯤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반대론자들은 '동성애 자체는 선택이 아니지만 동성애 행위는 선택이다'라고

말들을 하더군요. 이성에도 이성에 자체가 선택이 아니지만 이성에 행위는 선택이듯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이죠. 선택의 개념을 이렇게 한정시키면서 우리에게 ‘동성애는 선택이다’라는 개념을 강요하는 것이죠. 언어 게임이죠.

제 팔 하나를 자르는 것도 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전 두 팔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Q. 동성애를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토론’이나 ‘대화’를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건 내 믿음이야!’하고 모든 논리를 막무가내로 뚫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믿음’을 아주 편리하게 남용할 수 있죠. 넓은 세상 위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한 피곤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

전 믿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전 이들에게 특별히 할 말이 없죠.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귀와 눈을 막고 입만 여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런 믿음은 어디까지나 선택일 뿐이고, 그런 선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동성애 결혼이나 다른 합법화나 법적인 인정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치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

일까요? 아니요, 그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당신에게 당신의 믿음을 갖게끔 내버려두겠으니 우린 우리의 믿음과 신념대로 내버려 뒀라. 문명 사회에서 그 정도의 상호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회 옆에 절 옆에 동성 커플 결혼 예식장.

(본 인터뷰의 내용은 모든 성적 소수자들이나 사람과사람 회원들의 생각을 100%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白狗 씩

그의 웃는 얼굴이 떠 오른다..

그의 웃는 모습은 친진난만한 어린 아이 같다..

한없이 귀엽고 한없이 매력적이고 어딘지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누군가를 사귈 때면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무조건 나만 바라봐 주길 바라고 나만 생각해 주길 바라고

내 입장만 고려해 달라는 이 웅졸한 생각들..

과연 몇 살이나 쳐 먹어야 내가 좀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질 수 있을까...

과연 그를 얼마나 배려할 줄 알고

얼만큼 생각할 줄 알고...

난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난 고집이 세고 나 자신만 알고

그런 것들로 인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가장 무서워 하는 건.....

이런 나를 알면서도 이러면 안되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지...하면서도

또 그렇게 해 버리고 마는... 내가 제일 무섭다

이런 나 때문에 그는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참아 줄런지...

다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나.

오늘하루만큼은 정말 그를 꼬~~옥 안아주고 싶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시간..두시간... 동안

가슴에 땀이 배어 묻을 정도로...

나한테만 또는 그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일 수 없다.

이제 나도 그에 대한 배려를 시작할 때이다..

상진 씬

그 녀석

그 녀석 이름은 이상진. 지금부터 그 녀석과의 일들을 얘기해보려고 한다.

1998년...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도 기대에 한껏 부풀어 내가 다니게 된 학교를 정신 없이 구경하며 다니던 3월초에.. 나는 재수하느라 그동안 신에게서 멀어져 있던 것에 대해 후회 반 죄책감 반인 마음으로 동네 성당을 찾았다...

청년들을 위한 미사가 끝난 후, 단체별로 회합을 갖는지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중에 끼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올라왔지만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때, 불쑥 내 앞에 나타나 "저기.. 처음이지요??^^" 라고 물으며 사람 좋아보이는 미소를 지은 녀석이 있었다. 잠시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내게 청년부에는 전례부와 성가대 그리고 봉사부가 있다며 친절히 설명해주고는, 기왕이면 성가대를 같이 하자고 조르면서 은근 슬쩍 나를 성가대 회합자리로 끌고 가는 그 녀석 덕분에 나는 낯선 상황 속

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사실 나도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는 데에도 관심이 있었던 터라 성가대에 들게 되는데 안도하고 있었다...

회합이 끝나자.. 몇몇은 내일 바쁜 일이 있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대부분은 남아서 뒤풀이를 어디로 갈지 얘기하며 서 있는데.... 또다시 나는 빨쭈한 신세가 되어 버린 거 같았던 그때, 그 녀석이 또 날 구해주었다.

"정호형은 시간 어때요?? 되는 거죠? 우리 맥주 한잔하러 가는데 같이 가여~~"

"그..그래.... 가지 뭐.."

마지못해 가는 척은 했지만 사실 열심히 노래를 하고 난 후라 목이 마르는지 맥주 한잔이 간절한 참 이었는데...히히..잘됐다 싶었다.

뒤풀이 때 그 녀석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녀석이 올해에 현역으로 고대에 입학했다는 것과 성가대는 나보다 두 달 먼저 들어왔지만 중고등부 때부터 성가대 활동을 해 온 터라 이미 사람들이랑 꽤 친하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이모!! 오늘은 서비스 안주 뭐 주실 꺼예요?? 지난번에 해 주셨던 계란탕도 진짜 맛있었는데..헤헤..." 하며 친근하게 말을 거는 품이 왠지 조금 철없는 아이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놈이지 싶었다...

"형은 저랑 학번이 같지만 그래도 성당에선 연배로 위아래를 따지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또다.. 저 사람 좋은 표정.. 여자 여럿 잡겠네.크큭.

이런저런 생각속에 왠지떨리는 술자리에 나도 푹 빠져버렸고 와르르 웃기

를 서너차례..

이젠 늦었다며 일어나는 여자단원들을 집에 보내다주고 자기도 집으로 들어가겠다던 녀석을 보며 나도 따라 나왔다..

"형은 집이 어느쪽이세요?....와..진짜요?? 저도 그쪽인데.....오늘부턴 집에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겠다..헤헤.. 신나라.."

중간고사때는 같이 모여서 성당에서 공부하곤 했는데... 상진이 녀석, 커피는 어쩌나 잘 타는지.... 성가대 누나들이 상진이 커피 맛에 반해 매일 저녁 공부하러 올 정도였다.

그렇게 맛있는 커피와 함께, 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성적도 그럭저럭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활절 때는 성당에서 작은 음악회도 가졌는데 연습이 많아 조금은 버거웠지만 그나마 상진이 옆에 앉아 연습하는 날은 편했던 거 같다.. 그 녀석, 노래도 잘 해서 상진이 옆에 앉으면 음정 잡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이다... 암튼 두세달이 지나자 상진이랑 단짝이 된 나는 주위에서 이젠 상진이랑 사귀냐는 농담까지 듣는 수준이었지만 그게 난 기분 좋았다.. 왜냐면 그만큼 내가 상진이를 아꼈기 때문이었다.... 짜식, 형들한테 살갑게 구는걸 보면 어쩔뻔 진짜 동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사실 난 내 밑에 남동생이 없다. 여동생이 있긴 하지만 여동생은 남동생과 엄연히 다르니까.... 이런 상진이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름 방학 때, 캠프를 갔을 때는 아예 옆에 끼고 자면서 진짜 동생인 셈 치

곤 했고.

그 녀석도 날 친형처럼 따라주고 챙겨주고 해서 기뻐다...

그 해 여름엔 어느 때보다 연극을 많이 본 것 같다.. 그 녀석의 소개로 알게 된 연극에 나도 곧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영화와 다른 그 생생한 현장감에 이내 폭 빠져버린거다..

대학로에서 만나 연극 한 편 보고 밥 먹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춤추는 거나 공연 같은 거 구경 하고 돌아오는 일이 꽤 많았는데...가끔은 다른 사람들도 볼렀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둘이서 보냈던 것 같다...그러던 중.... 어느 날 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극을 보고 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다...

"상진아, 너 왜 여자친구가 없냐?"

"에이.. 형,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흠...글쎄... 여자 애들이 내가 별로 인가 부지.."

"장난하냐? 너 지난번에도 현영이가 너 좋다고 했을 때 열라 심각하게 거절했다며."

"아.... 몰라... 그러는 형은?"

아뿔싸. 이 자식이 내게 화살을 돌리다니..흠흠... 사실 난 그때 작업 좀 걸어볼까 하고 생각 중이던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돌아오니 당황스러웠다.

"아..이 자식아. 내가 너 만나고 돌아다니느라 여자친구 사귄 시간도 없는 거잖냐.."

"..."

잡자기 이 녀석이 정색을 하고 쳐다본다.. 짜식... 농담이었구면..그렇게 쳐다 볼건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요즘 성당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긴 한데.. 키익.."

그러자 그 녀석은 그러냐는 눈빛을 보내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맥주를 들이켰다..

뭐야.. 궁금하지도 않은 건가? 웬지 별로 자랑할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구야?누구야? 하며 꼬치꼬치 캐물을 모습을 예상했던 나는 상진이가 너무 조용하자 웬지 실망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술을 급하게 마시고 난리람.....

뭔가 어렴풋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오늘 술이 만나 보다 하고 넘겼다...

지하철 막차를 타고 돌아 온 잠실.

녀석은 구태여 오늘은 자기가 날 바래다 주겠다고 우겨서 그 녀석 집을 지나쳐 우리집으로 오던 중이었다. 한참을 조용하던 녀석이 조용히 물었다...

"정호형.....누구야? 형이 마음에 든다고 한 여자애가? 우리 성가대야?"

"하핫..응.. 거 왜 있잖냐... 새로 들어온 미연이라는 아이.. 보면 볼수록 끌리는 것 같아....히힃. 개... 팬참지않아?"

"응... 예쁘잖아...하..그래... 잘 되면 좋겠다....형..."

"그래..음하하..."

"..."

"상진아!! 왜 울어?? 갑자기 왜 그래? 너 아까부터 이상하다했는데.. 뭐야?
말해봐.. 무슨 문제 있는 거냐?"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상진이가 갑작스레 눈물을 푹푹 흘려서 얼마나 놀랐는
지 몰랐다.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이 입술을 꼭 깨물고 울기만 하는 녀석
때문에 마음이 아파 녀석을 동네 편의점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음료수를 사
다 먹였다...

조금 진정 되는 듯할 때쯤..... 그 녀석이 입을 열었다..

"형.... 나도 좋아하는 사람 생겼거든.."

"아휴...근데?? 근데 그게 울 일이냐??"

"근데... 아무래도 접어야 할 것 같아.. 형.. 나 그만 두려고..어차피..어차피.."

"뭐야.... 왜 그러는데? 누구야? 누구데??"

"아니.. 말 안 할래... 어차피 어떻게 될지 뻔히 하는데...나 정말 그만두고
싶어.."

"이것도 사내라고...야! 임마!! 김상진!!! 사내가 고백한번 못하고 사랑을 포
기한다니? 그 여자가 유부녀라도 돼??"

"아니야...형..."

"그럼... 뭐야... 누구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응....."

"그럼 누구야!!! 말을 해!!!"

"형..."

"뭐?"

"형이라고... 형.. "

"실컷 울고 농담하나, 지금??"

"미안.. 형.. 이럴 줄 알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씨필,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

순간, 내 머릿속을 채운 것은 호모에 대해 갖고 있는 역겨움과 추잡함... 그리고 이제껏 그걸 숨겨오면서 내 옆 자리에 있던 상진이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자식... 그거였던 거야? 그래서 내게 그런 더러운 수작을 부릴 심산으로 그렇게 잘 했던 건가?? 그토록 아꼈는데...그토록 좋아했는데...젠장 정말 좋은 동생이고 후배였는데... 믿을 수 없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그 녀석을 보니 사실인 게 분명해 보였다... 젠장!!! 이 더러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이 녀석과 친하게 지낸 것 만으로 내가 에이즈에 걸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난 여름캠프 때 끌어 안고 잤던걸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밀려왔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싶었다.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빌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형... 내가 형 좋아한다고... .. 사랑한다고...."

"닥쳐! "

보고 있었다... 그 녀석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알고도 있었다... 그 녀석의 눈이 얼마나 상처 받았는가를... 하지만...이건 도리가

없었다. 화가 나는걸 어쩔 수 없었고 난 심한 말을 해버리고야 말았다.

"죽는다... 한번만.. 더 그런 소리하면... 죽.인.다... 나 오늘 아무것도 못 들은 거야. 너도 아무 말 안 한거다. 자신 없으면 다신 눈 앞에 보이지 말던가...."

돌아서 집을 향하는 동안 난 그 녀석이 얼마나 서러워 할지 알고 있었지만 나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이 모든 상황이 짜증 났으며 한편으로는 겁도 났기에 그 녀석을 돌아 볼 수조차 없었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간 지나고 흥분이 좀 가라앉았을 때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난 그 녀석의 상처 받은 눈동자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잠자리에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당 가면 그 녀석을 어떻게 볼까..그 녀석이 나오기는 할까.. 했는데 역시 그 녀석은 오지 않았다...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주도 그 다음주도 연락 두절인 상태로 성당에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얘가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들 있는데 당연히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녀석이 없으니 성가대에서 잔일 하는 녀석이 없어져 성가대 방은 점점 지저분해져 갔고.... 나는 나대로 연습시간에 음집이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무엇보다도 그 녀석의 그 사람 좋던 미소가 자꾸 생각날 때 그 녀석의 빈 자리가 꽤 컸음을 느끼게 되었지만.... 마음한 구석에는 너무 심했다는 죄책감도 들긴 했지만..... 변명을 굳이 하자면 그때 난 아직 포용력도 작고 철도 덜 든 상태였고 게다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그 녀석에 대한 애정을 상쇄시키고도 남았다는 것이다... 결국 용기 없던 난 몇 번씩이나 상진이네 집 앞을 방향만했고 반년쯤인가 지나고서야 그 녀석은 다시 나타났다.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2000년 봄 군대에 갈 때까지 그 녀석은 내게 마치 내가 없는 듯이 행동했고 나도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다....가끔씩 마주치는 눈빛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의 눈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고... 항상 내게 보여주던 그 미소가 마늘로 찢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무표정으로 대체된걸 보면서도 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그냥...그때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 그 녀석이 언젠가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분명 쉽지 않겠지만.....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나서야... 내게 그 녀석이 얼마나 소중한 녀석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용기가 없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몇 번인가 그 녀석에게 편지를 썼을 때... 마침내 그 녀석으로부터도 답장이 왔다... 잘 지내고 있노라고... 형은 잘 지내느냐고... 나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졌다고 다행이라고....예전처럼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아마 아무도 모를까다. 잃었던 동생을 찾는 기분 말이다...

그 녀석은 내 철원에서의 군생활 동안 가장 많은 편지를 써 준 녀석이었다....

제대한 후 2년이 더 흐른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잘 지낸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젠 그 녀석이 게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말이다.... 물론 그 녀석과 많은 대화 끝에 얻은 결실은 긴 하지만.....

이제 그 녀석도 많이 달라진 듯하다... 학교에서 동성애자 모임도 한다고 하고...

보니 주위 친구들에게도 적지 않게 자기 성정체성을 밝힌 걸 보면....

물론..... 그 녀석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고...

내게 그런 녀석을 이성이 아닌 동성으로 내려주신 하느님이...

그런 힘든 사랑을 상진이 어깨에 짊어 주신 하느님이 원망스럽지만...

그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아를 확인하고 사랑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그 녀석이...

내겐 듣직한 동생을 둔 것 마냥... 아주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게 그런 소중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그 녀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참... 괜찮은 녀석.

아, 이 보시오!! 그녀석 데려갈 만한 어디 멋진 남자 녀석 없수?

기왕이면 나보다 휘~~얼씬 잘난 놈으로 말시오...하핫...

이현주 씀

“내 친구는 게이이다” Part III

그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 맞는 방학이 지루해 활동하게 된 성당 성가대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정말 눈이 예쁜(^^) 친구였다. 처음 본 나에게도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그가 나는 좋았다.

그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 다른 동기의 생일선물을 같이 사러 갔던 그 날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날 그는 밥을 먹으면서 나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난 사랑 얘기를 나누고 나면, 웬지 모르게 친해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던가... 나는 마치 그의 비밀을 혼자 간직한 듯 그에게 친근함을 느꼈다. 어쩌면 살짝 호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진짜 비밀(?)을 들었던 건 그를 만난 지 석 달쯤 지나서였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전에 말해주었던 그 첫사랑의 상대가 사실은 남자였다고 말했었다. 분명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던 것 같다. 왜 울었는지는 잘 생각이지 않지만, 잠시나마 그를 좋아했던 마음과 힘든 사랑을 시작하는 그가 안쓰러운 마음에 힘들었던 것 같다.

그 후로, 난 그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부쩍 많이 보게 되었다.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누군가를 좋아하며 힘들어 하는 모습, 그 아픔에 견디다 못해 내게 기대어 울던 모습을 보았다. 그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난 그가 그렇게 아플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 다른 건 모르겠다. 단지 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마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던 그의 모습이 아프다. 그런 힘든 일이 없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하던 그의 말이 아프다. 아프지 말라고 한다면, 과욕(過慾)일 것이고 난 단지 바란다. 그 아픔에 지치지말라고. 그리고 견뎌달라고.

분위기를 바꿔서, 그가 내 친구여서 재미있었던 기억을 잠깐 떠올려볼까 한다. 어느 날 그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지나가던 한 남자를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야, 저 사람 괜찮지? 그 때 그가 나에게 날린 일격,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남자 보는 눈이 없냐?였다. 난 가끔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며 웃는다. 같이 앉아서 남자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연애사업에 힘겨워 할 때면 언제든 가장 든든한 상담자가 되어 준 친구. 밤새도록 전화를 붙들고 수다를 떨어도 지루하지 않은 친구. 그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친구였다.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그를 친구로 받아들인 것은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였던 것 같다. 아무 것도 망치지 않는 왼
손잡이를 더 이상 고쳐져야 하는 그 무엇으로 말하지 않는 노래처럼.. 사실
지금도 어쩔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난 그와 같은 친구들
을 인정하는 척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이제와 말하지만, 난 그가 택하는 사랑방식
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난 단지, 그가 좋다. 그가 내 친
구여서 다행이다.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댄다는 것이 우습지만, 굳이 대자
면 벌써 6년째 함께 해온, 그래서 그만큼 쌓은 추억도 많은 친구이기 때문이
라고나 할까?

상호 씬

나의 첫번째 커밍아웃 상대는 내 여동생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다니던 때 같은 반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면서...나의 성 정체성을 자각해 가면서... 죄책감과 서글픔에 매몰된 내게
그나마 마음을 전부 열어보일 수 있는 상대는 내 동생 뿐이었다.

"유미야.. 오빠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응. 뭔데?"

"응..... .."

"아.. 뭔데 그렇게 뜬눈 드려??"

"그러니까... 오빠가... 오..빠가..."

"아휴... 답답해답답해.... 말하기 싫으면 말든가!!"

"너 이거 절대로 비밀로 지켜 줘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알았어..알았으니까 얘기가 해 보셔용.."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자신의 친 오빠가 동성애자라는 끔찍한(?) 사실을 애는 잘 받아드릴 수 있을까?? 혹시 얘기가 끝난 후엔 이 녀석이 날 더 이상 오빠로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 끝에 그래도 여지껏 내게 더 없는 사랑을 주어왔던 동생을 믿어보기로 했다. 어차피 기댈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털어 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성애자가 아닌 거 같아..아니, 확실히 아니야."

"뭐야... 그럼 동성애자라도 된다는 거야? 오빠가? ㅎㅎ"

동생은 무슨 그런걸 농담하느냐는 식의 웃음을 지어보이며 빨리 그 말 취소 하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순간 가슴이 아파왔지만 정색하고서 대답했다.

"응.. 맞아. 그래.."

순식간이었다. 동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그리고 곧 따르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과 함께 확인 사살을 하는 듯한 질문이 들려왔다.

"정말... 오빠 정말이야?"

"응...."

"....."

"....."

한참을 계속되었던 것 같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침묵이 계속되어 점점 불편해져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것 같아서 다시 말을 꺼내려던 그때... 동생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오빠가 왜 동성애자여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지 않지만... 노력해 볼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자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도 오빠 사랑해...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오빠는 내 오빠잖아..."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날 밤에는 오랫동안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나의 두 번째 커밍아웃 상대는 어머니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웃팅이었지만...

내가 처음 남자애인이란 걸 사귀게 되었을 때... 연인과 함께 가는 여행이란 것도 처음 가 보았다.. 나 나름대로는 꽤나 설레이는 기분에 좀 방방뜨고 다녀서 그랬는지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시고는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이었다. 여자랑 어딜 2박3일이나 다녀오냐고 말이다... 어머니께선 내가 소위 귀한 남의 집 딸내미 몸이나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셨던 거다... 내가 누차 남자 친구랑 간다고 얘기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선 믿지 않으시는 눈치였다. 정작 사고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내 동생에게 몸간수(?) 잘하라고... 오빠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해대시자 참다 못한 내 동생이 불쑥 오빠 애인 남자라서 몸 버리거나 아기 갖을 일 없으니까 제발 걱정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질러댄 것이다!! (절대 사실입니다..)

그것도 몰랐던 나는 더 멍청한 짓을 하고야 말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린다는 명목으로 남친에게 우리집에서 하룻밤 더 지내고 가라고 꼬셔서 그 친구랑 함께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하는 중에 그 녀석에게 학교는 어디냐.. 우리 상호는 어떻게 만났냐.. 부모님은 뭘 하시냐는 등 별별 질문들을 다 해대셨지만 나는 그냥.... 오늘따라 엄마가 내 친구한테 왜 이리 관심이 많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고.. 그 날 밤 유난히도 내게 이불 한 채 더 내어주시겠다는 어머니를 극구 말리며 침대 위에서 같이 자겠다고 우길 때에도 어머니의 슬퍼졌을 눈빛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동생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그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으셨던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오빠...미안해...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

"....."

"엄마... 많이 우셨어... 정말 목놓아 우시더라...."

"....."

"엄마 그렇게 우시는 거 처음 본 거 같아...."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다.....태어나서 별로 효도라고는 못해 본 아들이 고작 한 것이 어머니를 그토록 서럽게 울린 일이라니... 당신 잘못도 아닌데 다 당신 잘못이라 생각하며 눈물 흘리셨을 어머님께... 죄송스러웠다...

"그리고..오빠... 엄마가..나한테 부탁하셨는데..... 엄마 알고 있다는 거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오빠가 엄마보기 많이 민망할 꺼라고..그랬는데...그래도 오빠 알아야 할 꺼 같아서 말하는 거야...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는 척 하지 말구....."

그 후로 꽤 오랫동안 난 어머님과 서로서로 그 일에 관해 모르는 체 하며 지냈던 거 같다... 내가 남친과 헤어져서 힘들어 할 때 비로소 어머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다..

"엄마... 나 이제 개 안 만나.."

"왜? 싸웠어? 니가 뭐 잘못된 거 아니니...?"

"아니...그냥... 헤어졌어.."

"그러냐....잘 좀 지내지.... 괜찮은 아이 같아 보였는데..."

"....."

"그래.....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말아라....."

짧은 대화였을 뿐인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정하실 줄 알았는데...

모른척 하실 줄 알았는데...가장 큰 위로를 주셨던 어머니...

이젠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잘생긴 남자 텔런트가 나오면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런 애냐?? " 라고 물으시기도 하는 어머니....

요즘엔 가끔씩

"엄마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묻기도 한다...그러면

"니가 하도 출랑 대니까 좀 듬직하고 빈틈없는 녀석을 만나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

어찌 아무렇지도 않으시겠는가.....

며느리 손잡고 장 보시는게 꿈이시라던 어머니셨는데.....

가슴 아프실 텐데도 전혀 내색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이해하시려 애 쓰시
니....

세 번째 커밍아웃은 같은 교회 성가대에 있는 여자 동기였는데...

내 얘기를 모두 듣고 난 후... 그 친구의 첫 마디는..

"너... 그 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이었다...

마치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기분이랄까...

얕튼 이 친구와는 지금도 베스트프렌드로 지내고 있다.

그 이후에는 학교 모임에도 들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온갖 편견들도 사라
지고

자신을 갖게 된 덕에 그전에 겪던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털 수 있었다....

커밍아웃한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 학교 모임의 얼굴마담 노릇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뒤통수 맞아 본 적이 없는 듯하다...

다들 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은 가끔 지네들이 결혼 못하면 날 데리고 살겠다는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행복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놈은.

게다가 네겐 평생을 함께 할 게이, 레즈 친구들도 있다.

그 누구보다 서로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함께 할 가족이.. 친구들이..있는 나는 역시 행복한 놈이다.

jimmy do 씬

“엄마!!!!!!”

"엄마, 난 남자가 좋아"

"아이구! 어지간히 외로웠나 보구나. 너도 하루빨리
이쁜 여자와 결혼해야 이런 소리 안 하지... 나이가
40이 넘도록 미국에서 이렇게 혼자 사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어느날 밤.

미국을 방문한 어머니와 한 침대에 누워 독한 맘먹고
엄마에게 커밍아웃 했다.

일흔을 앞둔 올 엄마.....

나의 비장한 커밍아웃을 이해도 못하고
그 투박한 손으로 40넘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만졌다.

"인물이 못생겼나, 배움이 남만 못하나, 뭐가 모자라
아직 장가도 못 가나..내가 너 뺨에 말라 죽겠다.
너만 장가보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얼마나 외로웠음 남자가 다 좋을꼬.."

그리고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나 45에 홀로되어
너희 4남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외동아들인

네가 내 속을 이리 썩일 줄 몰랐다. 제발 결혼만
해라. 네가 결혼하면 미국 다시 오마..."

울 엄마 당당히, 같이 살고 있는 내 애인에게
애인인줄도 모르고 좋은 여자 있으면 형에게 소개
시켜 주라며 신신당부하고 뒤 돌아 보지도 않고
출구로 나가버리셨다.

딸들이 미국 가서 용돈으로 쓰라고 주신 돈,
꼬깃꼬깃한 1천5백 달러를 내 앤에게
떠나고 나면 나에게 전해주라 말씀하시며...
앤에게 주차장에서 그 돈을 건네 받은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쪽팔림도 그 무엇도 없었다.

그런 울 엄마가 요—즘 전화 와선 자꾸만
내 앤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내 앤과 통화하시길 원한다.

언젠가 앤에게 "OO이는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른다. 화가 나더라도 웬만하면
참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난
너만 믿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에게도 요즈음 노래처럼 읊조리던
결혼하라는 말을
일절 하지 않으신다.
그저 울 앤에게 잘해 주라고만 한다.

"너 성질이 좀 별나니! 그래도 JY이가
듣직하니 남자답더라...."

울 엄마, 금쪽 같은 당신의 아들의
정체를 이젠 아시는 듯 하다.
불안하면서도 체념한 듯한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난
엄마의 마음을 알 것만 같다.

오늘 밤.....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난다.
다 큰 자식의 눈물이 엄마에게는
비수가 되어 꽃히겠지만..
"엄마!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엄마! 정말로 사랑해... "

동 아 리

集

acorn 씬

모임 활동에 대해서

P2P에 처음 발을 들인 건 6월 셋째 주였다. 한참 시험 기간이었던. 하지만 난 그 전부터,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사람과 사람’(이하 P2P)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청소년 동성애자 모임에서 활동을 했던 내게 그 유명한 sky의 학교 내 동성애자 모임은 익숙한 일이었다. 모임에 들어왔을 때부터 선배들이 끊이지 않고 물어왔던 질문 하나. ‘왜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오지 않았냐?’

물론, 당시의 극에 달했던 대인 기피현상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느 누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동성애자 모임에 쉽게 발을 담글 수 있겠는가? 과 친구들과 아름다운 중광에서 시원한 분수를 맞으며 광년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서 웬 여잔지, 남잔지 알 수 없는 김봉남 선생님, 혹은 홍석천씨 같은 매우 여성스러운

늙은 선배가 하이톤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면... 아니, 이름도 아닌 통신상의 아이디를 부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모 대학의 동성애자 모임 분들에게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는 놀기 싫어’란 어릴 적부터 간직했던 진리를 다시금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매우 어렸던 때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담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대학 동성애자 모임이라면 당연히 인권운동을 하는 모임일 것이라는 강한 인상이었다. ‘동성애자인권연합’(이하 동인련)의 대학 지부정도로 생각했었던 대학 내 모임. 때 되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팻대를 세우며 어찌면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두르고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리트라고는 학점 잘 주는 교수 찾기 만큼이나 찾기 어려운 모임 같으니라고... 당연히 고대에 입학했고, 고대에 동성애자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난 모임에 들어왔고 또 신입생으로서 이렇게 가이드에 글까지 쓰고 있다. 그리고 위에 저렇게까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들어놓았으니 고대생 정도라면 누구나 옹호할 것을 예상하고 계시겠지. 빙고~! 맞았다. 일단 그 전에 들어온 계기부터 짧게 언급하자면, 고3 중반부터 활동하던 동성애자 모임에서 나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기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타대학 모임에서 활동하던 친구가 고대 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활동도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꼬드기고 꼬드겨서 못 이기는 척 외로움을 달래고자, 실은 물이나 한 번 보자는 심정으로 나왔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난 주변 사람

들과 재수할 때부터 점점 심해져온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거부감등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피하던 당시의 나에겐 정말 큰 결정이었다. 마치 3학점짜리 고학번들이 많이 듣는 상대평가 과목을 수강하는 것처럼.

6월 셋째 주 시험이 다 끝나서 여유롭던 시점에 당시 모임지기였던 땅콩형과 연락을 해 처음 만났고, 바로 그 다음 날 '스톤윌 항쟁 기념 토론회'도 나갔으며, 또 그 다음 날 6월 정기총회까지 연달아 참석했다. 처음 땅콩형과 만났던 날에 다른 회원 분들도 4~5분 나오셨지만 그리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고, 둘째 날에도 타 학교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른 선배 분들과 인사할 기회도, 대화를 나눌 기회도 적절치 않았었다. 정식으로 인사 드렸던 건 토론회 다음 날이었던 6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린 정기총회자리에서였다. 어림잡아 서른 분 가까이 나오셨고 생각보다 고학번이신 분들-물론 03학번인나의 기준에서-도 많았기에 인사만 꾸벅꾸벅하고 별 말없이 조용히 자리나 지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물이나 한 번 보자고 나간 지 달 수로 6개월이 돼가고 있다.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 참고로 본인은 눈 낮지 않다.

사람과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따리는 워낙 푸짐하니 차차 풀기로 하고 먼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P2P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옹호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물이 안 좋을 것이라는 선입견. 특 까놓고 서울, 연, 고대가 물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나? 결코 물 별로 안 좋은데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이 아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워낙에 필자 본인이 공부를 안 좋아하고 덩달아 공부랑 친한 애들까지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들 중에 소위 명문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매우 드물다. 어쩌면 얼굴 밝힘증이 심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필자 주위만 보더라도 남자고 여자고 소위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구분해보면 후자가 물이 훨씬 좋다. 이에 이의가 있는 분들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보시라. 물론 어딜 가나 공부도 잘 하고 얼굴도 이쁜 시기와 질투의 대상들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현재 필자는 P2P외에도 1개의 중앙 동아리와 1개의 소모임 그리고 과반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P2P에서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지만 다른 세 개의 모임에서도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모임들도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소모임은 소모임대로 널리 알려진 모임들이다. 그리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말하건대 P2P 물이 제일 좋다. 물론 P2P에도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 있고 다른 모임에도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못 이반학우들이 갖고 있을 물이 안 좋을 것이라는 가장 큰 걱정은 접어두시라는 거다. 솔직히, 매우 솔직히 내 기준에서 타 대학 모임보다 고대 동성애자 모임이 더 좋다.

또 하나는 인권운동을 하는 동아리라는 인식. 운동권 학생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나 필자 본인은 개인적으로 운동권에 큰 관심도 없으며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른 편이다. 물론 대학에 들어와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며 고맙게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학에 갓 들어와서는 '운동권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다. 그리고 P2P 또한 그런 모임의 하나로 비춰졌었다.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하며, 때 되면 피켓을 만들어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하고, 학교 친구들의 눈을 피해가며 비밀리에 포스터를 붙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돌이켜 보면 스스로의 용기 있는 행동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그렇게 외로웠나...;;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들어와 내가 한 운동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다다. 물론 지난 6월 스톤윌 항쟁 때 종로에서 거리행진이 있어 P2P에서도 공식적으로 참가했지만 개인의 자율에 맡겨 가고 싶었던 사람들만 참가했다. 그 외에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P2P회원들도 대부분 가족이며 친한 친구들에게 슬프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고 아직은 이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모두 다 조심하고 있는 문제이다.

얘기가 옆으로 살짝 쏘는데 말이 나온 김에 강제로 커밍아웃을 당하는 아웃팅의 위험도 없다는 걸 밝혀두도록 하자. 활동 반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웃팅의 위험은 한 번도 없었으며, 기존의 오래 활동한 회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인권 운동에 관한 선입견으로 돌아가서, 절대 아니다라고는 대답하진 않겠다. P2P는 한국에서 세 번째 대학내 동성애자 모임으로서 한국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따른 회원들에 대한 큰, 아니 작은 부담조차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앞장 서서 동성애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미약하나마 작은 힘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것이다. P2P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고대 내 이반들의 쉼터가 되는 것이니까.

활동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읊자면 아라비안 나이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입학 초도 아니고 여름 방학을 코 앞

에 두고 모임에 나와서 이것 저것 해집고 천둥 별거숭이 마냥 설치고 다니
느라 그 동안 활동했던 다른 모임에도 소홀해져 섭섭하단 소리도 많이 들었
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마저 줄어서 몹쓸 짓을 한 거 아닌가하
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밥모임”

과 친구들이나 다른 모임 친구들에게 소홀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밥모임 때문
이었다. 밥모임이라고 여럿이 모여서 거창하게 한 끼 먹는 것이 아니고 밥
때 되면 하나 둘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사실 새내기로 동기며 선배
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자리인 밥시간을 P2P선배들과 보내느라
안 그래도 동아리 사람들과도 먹어야 하고 과 사람들과도 먹어야 하고 모자
랐던 시간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해졌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
만 이런 상황이 크게 아쉽지는 않았던 것이 P2P선배들과 밥을 먹는 것이 조
금 더 즐거웠었다. 가장 큰 부분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나눌 수 없
었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정말 큰 기쁨이었
다. 그 동안 남들은 밥 먹으면서 속 시원히 해왔던 얘기들, 특히 연애문제 같
은 얘기들을 나도 이제 맘 편히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임에 들
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워낙 사람 수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밥을 먹는 것은
평생 학창 시절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이었다.

MT

P2P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뭔가를 맡아서 준비했던 일이 여름방학 MT였다.
대학에 와서 갔었던 MT들이 워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무척이나

들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존의 MT와 달랐던 점은 매우 호화스러운 MT였다는 점이다. 일단 장소가 민박집이 아닌 콘도였고, 넘치는 고기와 라면, 잡탕찌개가 아닌 정말 맛있는 카레와 갖가지 밑반찬들. 하나 더 자랑하자면 술도 맥주나 소주뿐이 아니라 과일소주와 산사춘이었다. 이효리의 그 산사춘...훗~ 아 MT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 건 P2P의 개방된 사고. 당연히 03학번인 필자가 제일 어리다. 아마 열이면 아홉이 어린 사람부터 일을 맡아 할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잔소리만 끊임없이 해댔고 97학번에서 02학번까지 두루 앞서서 청소며, 설거지며 식사준비까지 나눠서 했었다. 제일 어린 필자가 제일 편했던 MT가 아니었나 싶다. 재미있게 놀았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MT는 언제 또 가나하는 생각을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할 정도로 잊지 못할 MT였다.

학교 밖의 활동

대외적인 활동의 기회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있었다. 동인련 주최 대학 캠프나 외대 동성애자 모임과의 조인트 MT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연대와의 고연전 행사라든가 스톤월 항쟁 기념 토론회 등에는 나갈 수 있었다. 처음 참가한 행사였지만 스톤월 항쟁 기념 토론회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야 했기에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에서 큰 포스터를 수십 장씩 붙여서 홍보하고 제2학관을 빌려 큰 행사를 치렀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 고연전은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모임인 '컴투게더'와 매년 해온 행사인데 다른 학교 동성애자 모임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고연전 기간과 맞춰서 타 대학 모임들도 초대해 매년 호스트를 번갈아가며 다른 컨셉으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올해는 연대측에서 준비를 했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연대측과의 회의 등을 통해 다른 학교 모임과도 인연을 트고 행사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재미있는 행사 등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더 넓은 교류의 장을 통해서 이제까지와의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온라인 활동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판은 자유게시판과 클럽 플라자 게시판으로 나뉘어서 운영되는데, 자유게시판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게시판으로 공식적인 정보나 재미있는 글, 처음 들어온 회원들의 소개, 그리고 종종 P2P 회원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온다. 때때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이반들도 볼 수 있다. 클럽 플라자는 P2P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온 회원에 한해서만 개방이 되는데 자유게시판보다 훨씬 더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회원들간의 사적인 이야기, 고민거리,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후기 등 많은 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올라온다.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들러 글을 확인하고 또 쓰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 온지 얼마 안 된 한 신입회원의 경우 매일매일 컴퓨터를 켜 때마다, 또 사용 중에도 여러 번씩 홈페이지에 들러 새로운 글이 없나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할 정도로 게시판 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 외에도 사진을 찍어 올리는 디카갤러리 섹션이나 좋은 노래를 올려서 나눠 듣는 음악듣기 섹션, 그밖에 일정에 대한 안내나 활동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올리는 게시판 등 홈페이지 활동은 회원 모두에게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어있다.

일반인 모임이나 교외 이반 모임에서 찾을 수 없는 P2P의 특징

앞서 밝혔듯이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의지할 친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필자에게도 모든 것을 터놓고 지내는 - 정체성까지도 - 일반 친구가 있고, 누구보다 소중한 이반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을 그들과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일상 속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를 숨기면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괴로웠던 일 중 하나가 내게 모든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친구를 외면해야만 했던 일이다. 자신의 사소한 부분까지 숨김없이 털어놓는 친구에게 난 그럴 수 없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필자에게 대학의 선후배, 동기들로 다가온 P2P 회원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P2P 사람들은 대학동기, 선후배로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나와 똑같은 아픔이나 기쁨 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감사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대장금에 나오는 궁녀들의 관계 못지 않은 것이 P2P의 그것이다. 어느 모임에서나 그렇듯 사람들이 모이면 연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꽃피곤 하는데 P2P도 예외는 아니다. 워낙 동성애자들을 만날 길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들 애인 하나 꿰차려고 눈을 불을 켜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 모임에서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물론 모임 내에 CC도 존재하고 어딜 가나 그렇듯 시샘과 닭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 필자는 아직 혼자이며 그다지 CC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아 모임에선 오래오래 잘 지낼 것 같다.

계길...

P2P만의 장점과 단점, 느낀 점

P2P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쓴 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싶을 것이다. ‘또?’나는 지겨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소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모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지, 정말 하고 싶었던 자랑들은 아니다.

P2P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는 개방적 사고라고 꼽고 싶다. 아무래도 성적 소수자로서 꼭 막힌 사고에는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라 필자 평생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트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일단, 지금 이곳이 대한민국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이나 학번에 대한 서열의식이 없다. 그렇다고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천박한 것들이란 소리는 절대 아니다. 자신의 나이나 학번으로 상대를 누르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가 사람 대 사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비록 짧긴 하지만 필자가 새내기로서 한국의 대학에서 혹은 사회에서 느낀 나이나 학번에 대한 원인 모를 우월감은 어처구니없게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렇게 나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기에 많은 분들과 훨씬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의 졸업선배님이란 존재는 새내기에게 시어머니보다 어려운 존재다. 감히 그 분 사이의 그 많은 분들을 제치고 그 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란 중간고사 기간 중 광열람실에 자리 맡기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P2P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나이대인 선배님들과 얼마든지 가까워 질 수 있다. 물

론 P2P가 생긴지 올해로 8년밖에 되지 않아 많아야 30대 초반이신 분들이지만 20살 대학 새내기가 그 정도 나이대 분들과 접촉하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같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계신 분들에서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 받고 계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필자에게 돈 주고도 얻기 힘든 사람이란 무엇보다 값진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앞서서 그토록 강조했던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이에서 느끼는 동질감에서 오는 편안함이나, 인간관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일상 속에서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는 것 뿐 아니라 게이들만의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사이는 그렇지 못한 게이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이다. 아! 연애의 가능성을 빠뜨리면 못 CC이 가만히 있지 않겠군. 눈썹 시린 CC들도 P2P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타대학 성적 소수자 모임에서는 의외로 CC가 흔하지 않다.)

아쉽지만 P2P가 인류 최고의 이상적 모임은 아니다. 당연히 고쳐야 할 점들 보기 좋지 않은 점들도 존재한다. 떠벌릴 일은 아니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다. 먼저 앞서 자랑한 개방된 사고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기존 회원들 사이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드물지만 가끔 그 너무나도 편한 분위기에 만족해 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주위에서 따끔하게 혹은 부드럽게 바로 잡아주긴 하지만 역시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가끔 생기곤 한다. 그리고 달갑지 않은 자랑거리였던 CC는 문제가 된다. 어딜 가나 커플들이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니. 흥. CC가 될 확률이 높다 보니 그런 이들 중에서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비단 P2P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으레 생기는 그런 문

제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듯싶다. 때때로 따로 무리지어 노는 것과 같은 일도. 생각해 보니까 P2P여서 동성애자들의 모임이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 모임의 안 좋은 면이 있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생기는 일반적인 트러블일 뿐이다.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어 조금 무안하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껏 필자가 경험한 이반모임에서 일반모임까지 그 어떤 모임보다 애정을 갖고 있으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신입회원이 들어오는 일이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다. 새로 들어오면 챙겨줘야 하고 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며, 또 모임의 욕심 많은 막내로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다른 분들만큼 신입회원이 그저 달갑기만 한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 모임 좋으니 어서와요,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다. 그저 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렇게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바를 했던 점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한 이 말만큼은 정말 순수한 진심어린 자랑이다.

CJH, 씬

1. 비가 내린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날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요새도 엄청난 비가 내릴때면 엄마에게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던 날, 너가 태어났지”라는 말을 듣곤 한다. 요새도 비가 올때면 태어난 날처럼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20대 중반의 때물은 날 비가 깨끗이 해주는 느낌이랄까? 후후~

내가 태어난 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형이 죽은 이후, 아들을 기다린 우리 집은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큰 선물이 되게 틀림없다. -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선물로서의 가치를 다할 수 있을런지는 아직 의문이다.- 좀 빛한 말이지만, 공부는 그리 못하는 편이 아니어서 학업에 대한 만족은 채워드린 것 같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내가 과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난 이거 땀에 엄청나게 고민한 적이 있다. 뭐~ 이성애자(이하에서는 ‘일반’)에게는 선뜻 쉬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일반들의 생각들은, 최소한 이 지면에서 만큼은, 중요치 않을 것 같다. 이하에서는 나의 생각과 동성애자(이하에서는 ‘이반’)로서의 삶(=gay life)을 편히 얘기하고 싶다. 대단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쉽사리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호모새끼니 더럽다느니 자연적 질서에 반한다니 하는 말은 좀 그만두시길...—^ 동성애가 많이 화자되는 요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고방식의 편협함을 탓하시길.

2.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만7세가 되면 초등학교라는 곳에 입학해야 한다. 나 역시 그 또래에 학교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고, 남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이렇게 4군데의 학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난 대학교, 정확히 말해서 군계대 이후의 대학생활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그 전까지는 나의 성적체성 고민으로 인해 많이 괴롭고 힘들때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몇 번의 번개와 인터넷을 통한 채팅을 통하여 답답함을 해소하였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동질감은 일시적이거나 나를 좀 편하게 해주게 전부였다.

‘사람과 사람’이라는 모임(현재는 중앙동아리^^)을 알고 난 후로 부터, 학교에서의 이반들과의 모임이 나를 매우 편하게 만들었다-문득 지금 내가 교회

에서 간증하는 것 같이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는 느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사실이니까...

동질감이 주는 안정감은 인간관계를 매우 부드럽게 만든다. 군대에서의 군인 신분이라는 동질감, 가족이라는 동질감, 친구와 둘만의 동질감, 혹은 친밀감... 동성을 사랑한다(혹은 좋아한다 내지 매우매우 관심있어 한다)라는 부분이 가져다 준 동질감이 내가 나에 대해 더욱 더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직시할 수 있고, 남에게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자신감. 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은가. 자신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하며 소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지만, 동성애는 콤플렉스도 자신감 결여의 요소도 아니다. 단지 동성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게되고 사랑하고픈 대상이 동성이라는 거다.

3. 첫사랑?!

여기서 좀 지켜올 때도 되었으니, 내 첫사랑 얘기를 해보겠다.

고2시절, 나와 자주 짝을 하던 그 녀(참고로 남자고등학교였음). 농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꽤나 괜찮은 녀. 그를 생각하면 나이키상표의 농구화와 짧은 머리, 농구를 매우 좋아해서 추운 겨울에도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운동 후에 헉헉거리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 영화포스터를 광적으로 모았고, 만화그림을 매우 잘 따라 그렸던 모습, 서로 주고 받았던 사진과 수십통의 편지들. 그 때 당시 주위 애들이 그를 찾을 때면 나에게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곤했고 나를 찾을 역시 그에게 그랬다. 어딜가나 항상 붙어 다녔고 둘이 쌍으로 커플티를 맞추어 입기도 하고, 시험공부도 같이 하고... 나는 그저 그가 좋았을 뿐 그때 당시는 그를 사랑했다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장난삼아 ‘너 그 녀미랑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농을 그냥 웃어 넘기곤 했었다. 항상 같이 있던 만큼 자주 싸우기도 했다. 별거 아닌거 가지고 일반 연인같이 싸웠다. 나에겐 그러했던 시간이 매우 소중한 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아주 짜릿하고 들뜨 감정을 알 았던 기회이기도 했을 뿐더러, 내 생애 ‘첫사랑’이란 소중한 선물을 받게되었 으니 말이다.

둘이 첫 키스를 하던 때가 생각한다. 내 방 피아노 앞에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 나는 내 첫사랑을 가 지고 거짓말을 할 만큼 그리 가볍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교졸업 후, 그는 지방대로 진학했고, 그 이후로 그가 군입대하기 까지 가끔 연락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만 접하고 있다.

4. 나? 글썄...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난 이말을 참 좋아했었다. 그런데 모든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후로 이제는 저 말이 좀 의심스럽다. 내가 주위 일반들에게 “케이”라고 커밍아웃(coming-out)을 했을 때,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여기서 주위에 커밍아웃한다는 것은 한국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쉽게 짐작할 것이다.)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말 없는 무반응, 장난치지 말라며 웃어넘기는 사람들...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며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도 고맙다.

‘가족’한테도 했냐구? 저기 위에서 밝혔듯이 우리 가족 중 아들이 나 한명인 관계로, 더욱이 아들에 대한 소원함이 컸던 탓 또한 고려하면, 쉽게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서 커밍하기는 쉽지 않다. 방법은 딱 두가지다. 일반인 척 하면서 결혼하여 나를 숨기고 사는 것, 아니면 당당히 커밍하는 것. 은근슬쩍 넘기는 건 싫다. 내가 게이인 것은 내 잘못도 부모님의 잘못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니기에 마치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소심한 모습은 거부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도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가족에 대해 어떻게 언제 커밍할 것인지는 고민거리이다.

나와 마주한 상대방이 나를 게이로 인정해주면 그만인데, 그게 쉽지 않다. 내가 뭔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나를 밝히는 것 뿐인데...

세상에 빵만 먹고 사는 사람과 쌀만 먹고 사는 사람만 있다고 치자. 내가 빵을 먹고 그것만을 좋아한다고 하여 쌀만 좋아해서 그것만 먹는 사람에게 빵을 강요할 순 없다. 내가 싫고 용납할 수 없으니 넌 당장 바뀌라는 식은 정말 상식이하이기 때문이다. (아~갑자기 피비우스의 띠를 도는 듯한 어지럽이

몰려온다. ——;;)

내가 나를 정확히, 아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저 주위 사람들이 넌 좀 성격이 이래, 넌 이런 점이 장점이야 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렇게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서 아들, 학교에서는 학생, 못사람들 간에는 친구, 선배, 후배, 오빠, 형 등으로 불리는 게 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난 게이다.

내 이름과 학과, 학번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우리 동아리에 열린 마음으로 오길 바란다. 만약 만나게 된다면 정말 평범하면서도 지루하지 않는 이반의 얘기에 대해 밤새도록 떠들어 줄 수 있다.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written by CJH, Dept. of Law.

Pdpd 씬

사람, 사람과 사람에 들어오다!

올해 여름,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 모임에 얼굴을 내비쳤다. 졸업이 채 반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동아리는 왜 들었는지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실은 찍어둔!) 동아리라 졸업하기 전엔 꼭 사람들을 만나야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졸업 바로 직전에 들어갈 줄은 나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난 결국 이 동아리에 들어왔다.

동아리의 성격상 사람들이 맨 처음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히 성적 정체성. 당연히 레즈비언 이겠지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건 꽤나 당혹스러웠다. 물론 여자 애인이 있는 적도 있지만 현재가 그렇다 보니. 아무튼 나를 '바이'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이런 나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이상하게 이 모임에서는 이반들 가운데 홀로 바이인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말고도 바이가 더.. ^
-^;)

그리고 사실 예전 애인들은 모두 여자였지만 대학 이후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고 지금 사귀는 사람도 남자. 그래서 현재는 이반보다는 일반에 가까운 상태라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굳이 동아리에 들지 않아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많고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한동안은 동아리에 나가기가 웬지 모르게 꺼려지고 이상했다. 내가 가짜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_-;;

그리고 가끔씩 나가도 난 웬지 회원이라기 보다는 게스트 같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꽤나 뻔뻔한 성격의 소유자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너무 많이 친한 회원들 사이에 새로 적응하는 건 꽤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아 아 아 - 그렇게 혼자서 얼마간을 머리를 쥐어 뜯다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고민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그 녀석은 되려 내가 굳이 지금 그 동아리에 들 이유가 있냐고 나에게 되묻는 것이었다. 왜 굳이 그 동아리에 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반인 그 녀석은 내가 이 동아리에서 여자라도 꼬서올까바 그런 건지 -_-;; 아무튼 썩 그리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왜 내가 이 동아리에 들려고 하는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더군. 이유도 없이 꼭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왜 드는지. 으악 한동안 머리가 정말이지 복잡해졌다.

그러다 문득 일학년 때 학생운동 했던 생각이 났다.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학생, 장애인권문제를 이야기 하는 학생들. 사실 그네들이, 그들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노동자라서, 장애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실천하면서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게 아닌가.

그 순간 복잡했던 머릿속이 착착 정리가 되어 나가는 듯 했다.

운동권 예를 들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동성애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이 모임에 든 것은 절/대/ 아니다. 난 그저 내가 믿고 있는 것,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있어서 그 만남 자체가 아름답고 중요한 거지 그게 동성간인지 이성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다. 내 옛날 애인들과 나의 소중한 추억들이 철었던 어린시절의 한때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 어쩌면 내 미래에 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단지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어쩌면 소수라서, 변태 취급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쪽수라도 채워보자 하는 마음에 -_-;;

하아 -하하하 어찌 어찌하여 결국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결론을 찾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정리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땐 정말 마음이 편했다. 게스트인 듯한 느낌도 더 이상 들지 않았고. 그러나 결론을 낸 뿌듯함도 잠시.. 사람들이랑 쉬여서 웃고 떠들며 놀다가 이런 고민들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내가 바이라서, 이 사람들이 게이라서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_-?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아 - 고민한 시간들이여.

에라이 - 모르겠다. 그런 건 일단 뒤로 제껴두자. 지금은 하나만 생각해야지.
그것은 바로, 동아리에 들어온 건 정말 잘 한 일이라는 거! ^-^*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오오오~.

ohayooo@hanmail.net

사람과사람 가입 절차

사람과사람은 고려대학교 내의 모든 대학(원)생, 교직원, 행정인, 교환학생과 학점교류 수강생을 대상으로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이반 사회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북구 안암동/종암동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1. 사이트의 가입 양식을 찾아서 가입하고, 대표 메일에 전화번호 남기기.

a. 사이트 주소: <http://www.queerkorea.org/> 가입 양식은 “join”을 클릭

b. 대표자 메일 주소: saramkorea@lycos.co.kr

2. 대표가 전화하면 시간 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거의 밥모임;;)

3. 오프에서 만나면 레벨 6로 승격, 클럽 플라자 게시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 그 학기 이내에 엠티나 총회에 참석하면 레벨 5로 승격, 사진 게시판과 레벨 5 게시판을 볼 수 있고 100% 정회원이 됩니다^^

*** 타대생은 정보 보안상 레벨 권한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We are fond of saying that People 2 People is "the one club at Korea University where not speaking Korean is not a problem!" In the past few years, People 2 People has readily accepted foreign exchange students and language school students who feel stifled at the massively heterocentric atmosphere of Korea University and the Korean nation in general. There is no obligation to actually "join," or to be active in any of our projects, as we run the club on a complete volunteer-only basis. (All freshmen who dispute our zero-coercion policy are lying through their teeth.)

Please contact us through our saramkorea@lycos.co.kr address for details! :)

퀴어가이드 3호

고려대학교 성적 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펴냄.

2003년 12월 3일 인쇄

2003년 12월 10일 배부

퀴어가이드 2호

2002년 12월 9일 발행

퀴어가이드 1호

2001년 12월 10일 발행

<http://www.queerkorea.org/>

saramkorea@lycos.co.kr